

변동성 장세에 은행株 급부상... 실적·금리 모멘텀 맞물려

대표적 방어주... 상대적 강세 보여
주주환원 등 자체 투자매력 갖춰
“2분기 실적 양호할 가능성 높아”

플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은행주가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순환매가 나타난 가운데, 양호한 실적 전망과 주주환원 기대감, 금리 모멘텀이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들어 코스피는 5.01% 하락한 반면 KRX 은행 지수는 8.87% 상승하며 KRX 업종 지수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KRX 증권 지수도 8.60%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7.89% 급락했던 지난 2일에도 KRX 은행 지수는 4.24% 강세를 보이며 금융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업종에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주



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0.46% 하락한 8051.33, 코스닥 지수는 2.46% 내린 847.07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등 일부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던 영향이 컸다”며 상대적인 피난처 역할과 더불어 자체 투자매력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에 마감했던 코스피는 다시 8000선을 위협받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지난달 29일 한때

97.99를 기록하며 장중 고점을 경신했으며, 이날도 86.86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20~30 수준은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방어주인 은행 업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KRX 은행

지수는 연초부터 2월까지 27% 상승했지만 3월에는 11% 하락했고, 5월에도 8.54% 내리며 조정을 거쳤다.

은행주는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주주환원이 50%에 근접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미미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짚었다.

주주환원 정책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하나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CET1)비율 관리를 위해 6월 초 중단했던 자사주 매입을 7월 1일부터 재개했으며, KB금융지주는 6월 일간 1만주에 불과했던 자사주 매입 규모를 7월부터 25만주로 대폭 확대했다. 신한지주도 지난 4월에 발표한 새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10%)를 최우선으로 주주환원을 상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모멘텀도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7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금리 상승 폭이 더 커지며 장단기금리차는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징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은행주 전반에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장금리는 은행주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9%로 한주간 11bp(1bp=0.01%)포인트 상승해 4.5%에 바짝 다가섰고,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8bp 상승하는 등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90억달러 규모 ADR 상장... 저평가 해소 기대도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추진

나스닥 100 등 주요지수 편입 전망
일각선 메모리반도체株 과열 경계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달러(약 44조2000억원) 규모로 미국에탁증권(ADR)을 나스닥에 상장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장 규모는 알리바바의 2014년 미국 상장(250억달러)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의 2019년 기업공개(IPO·256억달러)를 모두 뛰어넘는다.

상장의 목적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칩이라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강자로 꼽히지만, 그동안 한국 증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시에만 상장돼 있어 미국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쉽지 않았다.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거래해야 하는 불편과 환전 부담에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비(非)스폰서 ADR(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장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스닥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정규 장 시간대 거래는 물론 나스닥 100 등 주요 지수 편입 자격도 확보하게 돼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 매수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의 운용자산만 4820억달러(약 735조원)에 달한다.

투자회사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다니엘 모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 시장인 미국 증시를 활용하면 SK하이닉스의 저평가 해소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이 6.2 배다. 경쟁사 마이크론은 지난주 주가가 14% 급락한 뒤에도 7배 수준이다. 마이크론의 PER는 지난달 22일까지 11배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순이익 221조원(약 1440억달러), 매출 355조원(약 2310억달러)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415%, 26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마이크론의 순이익은 876% 급증한 830억달러, 매출은 247% 늘어난 1300억달러로 예상된다.

다만 메모리반도체주의 가파른 랠리가 과열됐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자금을 자체 현금 아닌 채권·주식시장 조달로 돌리는 추세는 메모리 제조사들의 실적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산관리회사 리버웰스 어드바이저스의 에드 오그먼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기 버블에 발을 들여놓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ADR과 서울 상장 주식 간 가격 차이를 노린 헤지펀드의 차익거래 수요도 뒤따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달 자금을 국내 생산공장 2곳 신설과 첨단 장비 도입에 투입할 계획이며, 경쟁사 삼성전자도 비슷한 규모의 증설에 나서고 있다. 불과 3년 전에도 수요 둔화로 메모리 가격이 무너지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모두 적자를 낸 적이 있어, 이번 증설 경쟁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반대율 상승

금감원 자산운용사 현황 점검
공시수준 등 개선 과제 확인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모두 높아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여전히 형식적인 공시와 미흡한 내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개사, 총 4만6827개 안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지난해(91.6%)보다 소폭 상승했고, 반대율은 6.8%에서 8.2%로 높아졌다. 전체 안건 가운데 찬성은 82.4%, 반대는 8.2%, 불행사·중립은 9.4%로 집계됐다.

다만 공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121개사(42.4%)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일반 사모운용사는 내용과 성격이 다른 안건에도 동일한 행사 사유를 반복 사용하거나 공시 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경영진·임직원 자사주 매입 행보

김병철 대표, 1만2100주 매입

한양증권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회사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사주 보유를 늘리며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은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만2100주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이준규 자본시장본부장은 지난 5월 4000주를 추가 매입



했고, 박성주 CM본부장과 김태연 채권시장본부장도 지난 6월 각각 9602주와 976주를 신규 취득했다.

사내에서 회사의 자본 규모와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검토하는 임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매입한 한 직원은 “회사의 성장 전략과 수익 구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함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채권 투자, 맹신 말아야”

6가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채권 투자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 분쟁사례를 토대로 채권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국제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단기 전에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고령 퇴직자 등 원금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자금 등으로 채권을 단기 전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기간과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리 전망만 믿고 투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수년 뒤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외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수익률의 차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채권은 거래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민평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민평금리와 실제 매매단가의 차이를 비교한 뒤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시장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한 뒤 장내와 장외의 매수단가, 수수료 등을 비교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허정윤 기자